

서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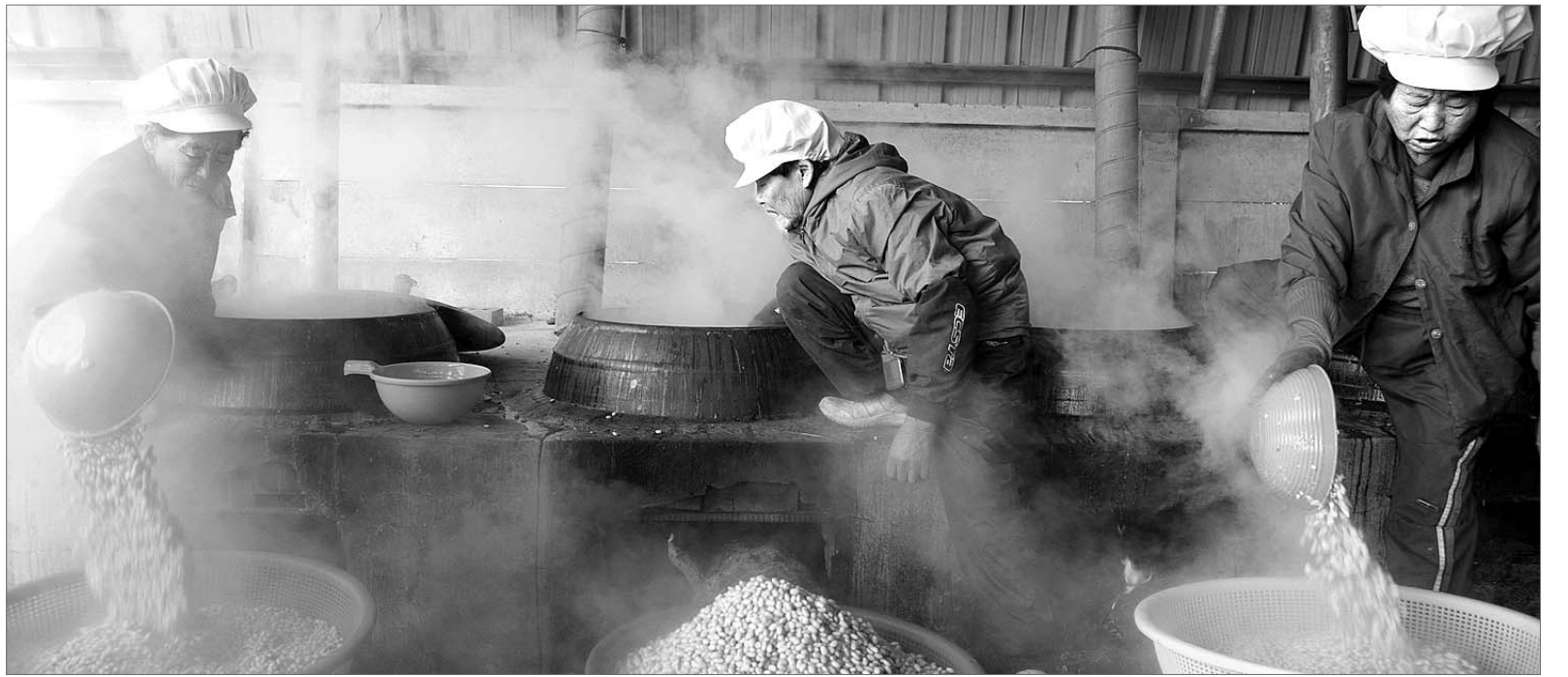
목포 놀이시설 안전 '빨간불'

255곳중 196곳 철거·보수 판정...市, 예산 3억원 '쥐꼬리' 편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본격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관련 예산을 '쥐꼬리만큼' 반영해 사업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10곳 중 8곳이 부실한 상황에서 보수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목포지역에는 ▲어린이 공원 49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놀이터 6개소 등 총 58개소에 255종의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는 법시행에 앞서 지난해 한국생물환경 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합놀이대 52개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15개는 철거하고, 37개는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놀이시설 130개소 가운데 철거 대상은 57개, 보수 대상은 4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바닥장도 73개 대상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곳은 29개소

에 불과했으며, 1개소는 전면 교체, 43개소는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시설별로 살펴보면 철거 또는 전면교체 대상이 '흔들 놀이기구'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오르는 기구 9개 ▲그네 6개 ▲미끄럼틀 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내에 설치된 255종의 놀이시설 중 무려 196개를 철거하거나 보수(부적합 사항이 4가지 이상인 경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을 관련 법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교체 8억 5000만 원 ▲보수 3억 5000만 원 ▲바닥장도 5억 7000만 원 ▲안전표지판 설치 2억 8000만 원 등 총 20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원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6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폭 삭감돼 단 3억원만이 계상됐다. 시는 지금까지 2009년과 2010년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 내년예산 3억

원까지 포함해도 총 6억 5000만 원에 불과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강간배 에결특위 위원장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련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느 사업순위 위 못지않다. 공직자들의 그러한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가 최우선인 만큼 법적제 취지에 맞게 관련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 모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 26일 제정됐다. 법정정 이전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오는 2012년 1월까지 정비를 마쳐야 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통방법 그대로... 옛맛 그대로

지난달 30일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입석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메주를 만들기 위해 직접 재배한 토종 콩을 가마솥에 삶고 있다. 부녀회 회원들은 전통방법으로 메주를 만들어 마을 공동건조장에서 50여일간 겨울바람에 건조한 뒤 내년 2월 판매한다. <함평군 제공>

무안공항 살리기 6억 모금

목포 등 서남권 지자체,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들이 무안 국제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는 서남권 인근 4개 군과 함께 국제·국내 노선 증편을 위해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내년 지원규모는 목포시 1억원을 비롯해 영암·무안·신안·함평 등 4개군 각 5000만원씩 3억 원이며, 전남도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이다. 시는 북경·상하이·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중 월 8회 이상 운항할 경우 5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무안 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는 물론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전남도와 인근 5개 시·군이 '항공사 재정지원금'을 부담기로 했다"며 "2011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최초 공개된 신안 공룡알 동지화석

육식 공룡 실체 규명 '열쇠'

목포자연사박물관 26일까지 특별전

지난해 10월 목포시와 전남대 한국 공룡연구센터의 서남권 지질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신안 압해도 공룡알 동지화석 등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최근 압해도 공룡알과 동지화석 복원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첫날인 2일에는 발굴조사 결과보고를 겸한 학술세미나와 학술답사를 열었다. 박물관은 화석보존과 자체 발굴 조사를 거쳐 화석이 포함된 암석덩어리를 박물관으로 옮겨 보존처리 및 화석을 담은 암석제거 등 정밀 복원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특히 1년여 동안의 정밀 복원 작업 등을 거쳐 타원형의 표면 장

식이 뚜렷하고 크기가 41~43cm에 이르는 국내최대 크기의 육식 공룡알 16개가 포함된 지름 230cm 규모의 동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특별전은 화석발굴조사 전 과정을 동영상 등 전시 콘텐츠로 소개하며 암석덩어리를 부서지지 않게 박물관으로 옮기는 과정에 서부터 암석에 화석이 드러나는 세밀한 과정, 가짜 공룡알과 진짜 공룡알 화석을 구분하는 방법 등 40여 점의 관련 전시품도 함께 소개된다.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한국 이름을 딴 '코리아노 사우루스' 복원 모형을 전남대 한국 공룡연구센터로부터 옮겨와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와 복원은 한반도 육식공룡의 실체를 밝혀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중 어선 나포 100척 돌파

목포해양경제비 '성과'

목포해양경찰서가 올해 들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연계하는 해·공 일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중국어선 침범방지에 주력한 결과 30일 현재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04척을 나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3척)보다 11척이 늘었다. 지난 2008년 133척, 2009년 122척을 나포해 20억원 이상의 답보금을 징수했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3일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000여 대형함정을 포함한 경비함정 9척과 헬기를 동원, 집중단속을 나가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9일 신안군 가거도 남쪽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영해침범 노영여호(210t) 등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이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뿐만 아니라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해상공권력을 동원, 어적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유적지, 아는 만큼 보여요"

다도해서부사무소 자연해설 서비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 해상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최근 신안군 흑산도 진리 당집(사신) 등을 복원하고 한 차원 높은 탐방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다도해 해상 서부사무소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8000여명원을 들여 역사상 및 보존 가치가 있는 신안 흑산도 진리 당집을 비롯해 진도 관대도 우실과 돌담길, 당집을 복원했다. 신안 흑산도 진리 당집(신안군 향토자료 제 1호)은 마을주민들

이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처녀당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황정걸 소장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 가운데 유형자산을 복원한 후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해설을 실시한다"며 "앞으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을 적극 발굴해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명품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해남 풍광은 오픈 세트장"

시크릿 가든 등 드라마·영화 촬영지 각광

해남이 최근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SBS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촬영됐다. 이 단 촬영분은 7·8회분(4·5일 방영 예정)으로 가든파티와 골프장, 객실장면 등이 촬영됐다. 이 밖에도 해남에서는 최근 개봉한 이영민 주연의 영화 '똥장' (산이 매화 농민)을 비롯해 ▲면길(황산, 송지 등 농민)을 비롯해 ▲내 운명(산이 매화 농민) ▲파승승계탄타(땅굴, 화원 매ल्ली 등 해남도)이 해남의

자연을 배경으로 촬영된 바 있다. 또한 영화 '바람의 파이터'(고천암 갈대밭)와 '내 여자친구 구미호'(달마산 도솔암), 드라마 '추노'(달마산, 미항사), '호박꽃 순정'(해남 배추밭) 등에서도 해남의 풍광이 소개됐다. 이처럼 해남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때론 지 않는 시골 정취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경관 때문이라는 게 제작 관계자들의 평이다. 더욱이 고천암 갈대밭과 달마산, 해안도로와 황토길은 해남만이 간직한 최적의 영상미를 연출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함평군 '다문화가족 축제'

함평군은 지난달 27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이낙연 국회의원, 안병호 함평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다문화 가족,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

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준비한 전통의상패션쇼를 비롯 다문화사회 인형극, 뭉글 전통춤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베트남 띠엔장성 조국전선위원회 통 방배 하이 주석이 방문해 결혼 이주여성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GG경매 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categorized by location (e.g., Gwangju, Jeonnam) and property type (e.g., Apartment, Single House).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Surog Market, Sangsanbuk, 3002m (908pyeong), 15억 원대 총 7억 7천 원대 중개 수수료 인건,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 다양.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 투자용).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such as 590pyeong building, 594pyeong building, and 234pyeong building with prices and features.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Includes details for a 2,850m² commercial land for sale in Sangmu, Gwangju.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Includes details for a commercial building for sale in Daedong, Gwangju, highlighting its location and price.